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⑪

부처님 출현은 강물에 달 어린 것과 같아

則是莊嚴兜率陀天 示現降神胎胎 出家 詣道場 降魔怨 成正覺 轉法輪 入涅槃 於十方國土 究竟一切佛事 具足真應 二身 則是初發心菩薩也

“즉시장엄도솔타천”부터는 보살이 수행하는 가운데 팔상을 장엄한 것과 깨달은 뒤에는 팔상을 나타내 부처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범어의 도솔타는 지족(知足)이라고 번역한다. 도솔타는 욕욕천 가운데 네 번째 하늘을 말하며, 여기에는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이 있다. 내원은 보처보살이 거처하는 곳이고, 외원은 하늘나라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

보살이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고자 할 경우 모두가 내원궁에 머물다가 시기가 무르익으면 하강하여 인간세계에 태어난다. 이 도솔천 내원궁은 마륜보살을 위하고 보처(補處)보살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이 성불하려 한다면 반드시 수행하는 가운데 도솔천 내원궁을 장엄하게 꾸며야 한다.

“어머니 태속에 갇힌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것은 바로 강생상(降生相)인데, 거기엔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고 태속에 머물다가 태속에서 나온 이 세 가지 모습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승과 소승의 관점에서 차별이 있다.

대승은 세존이 어머니 태속에 있으면서 매일 할 사이 없이 모든 보살과 모든 오묘한 법을 설법했다는 관점으로, 이것은 전단누각에 머물면서 대법륜을 굴리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승은 보살이 육아백상을 타고 어머니태속으로 들어갔다는 관점이다.

“출가(出家)”는 석가세존이 열아홉 살 때 한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한 모습을 말한다. “항마상(降魔相)”은 소승의 관에서는 마군이 실제 있다고 여기고 항복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대승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소승에서는 마군이 실제 있다고 집착하나 대승에서는 마군이 없는 것을 명료하게 알고 있어 그 당체가 여여하게 부처와 마군이 평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정각(成正覺)”은 세존께서 낱알 필잎에 보리수하에서 아반에 명성을 보시고 활연대

오하여 등정각을 성취한 것을 말하며 ‘전법륜(轉法輪)’은 도를 성취한 이후 보리수하에서 일어나 녹야원에 나아가 다섯 비구를 위해 사제법문부터 오시팔교(五時八教)까지 설한 것을 말한다.

“열반에 들었다”하는 것은 팔상성도가운데 최후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는 모습도 있고 열반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찾아오심도 있고 떠나가심도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떠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중생은 인연이 무르익으면 태어나지 않는

부처님은 태어나고 열반하는 거래 단절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가는 모습 없어

데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강생, 주태, 출태 내지는 법륜을 굴리다가 중생의 근기가 다하면 열반의 모습을 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열반하지 않은 가운데서 열반의 모습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중생계에 출현하시고 열반을 보인 모습은 중생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님이 오셨다 해도 중생 때문에 오셨고 열반의 의미한다. 마치 천상의 달이 모든 강물에 보편하게 어리듯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간 것이 없이 사방 세계 활진국토 가운데서 일체불사를 최후까지 성취하면서 진신(眞身)과 응신(應身) 등 두 가지 몸을 구족하게 갖춘 것과 같다.

진신은 진실한 지혜가 법신과 하나로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기신론(起信論)>에서는 “자체에 대지혜 광명이 있어 법계를 보편하게 비춘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응신은 만물에 두루 호응하고 중생을 흡족하게 교화하면서 그들 마음의 한량만큼 갖가

지 몸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비유하면 천상에 있는 하나의 달이 수많은 물에 동시에 나타나지만 그 달이 실제로 오는 모습도 떠나는 모습도 없는 것과 같다.

<금광명경(金光明經)>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해서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 마치 물속에 어린 달과 같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대승과 소승에서는 관점의 차별이 있다.

대승에서는 팔만사천상호와 칠천상호를 나타내어 허공에 두루 보편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존의 특별한 응신이다. 그러나 소승과 인간 천상 등에 감응할 땐 노비구 장육(丈六)의

몸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소승의 관점인 하열한 응신이다.

진신은 천상의 달과 같고 응신은 물속에 어린 달과 같다. 따라서 진신은 자체와 같고 응신은 작용에 해당된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작용은 중생의 인연을 따른다. 이미 자체를 따라서 작용을 일으켰다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연을 따른 것이므로 전체의 진신이 감응을 일으킨 것이 된다.

가령 작용을 거두어 자체로 귀결시킨다면 작용은 항상 인연을 따르면서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의 응신이 진신과 하나의 상즉관계에서 진신과 응신이 만족하게 구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교의 초발심주(初發心住) 보살의 경지이다.

華嚴經中 初發心時便成正覺 了達諸法眞實之性 所有慧身不由他悟 亦云 初發心菩薩 得如來一身作無量身 亦云 初發心菩薩 即是佛 여기에서는 경전에서 인유·증명하고 풀이 했다. 초발심주보살이 백계(百界)의 몸을 나타

내어 팔상의 모습으로 부처가 된다는 의미다.

<화엄경(華嚴經)>에서는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성취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교(圓敎)에서는 십주 가운데 처음 발심주에 해당되지만 별교(別敎)에서는 십지가운데 초지에 해당된다.

십주 이전에 이미 견축(見覺) 사혹(思惑) 진사혹(塵沙惑)을 끊까지 다 끊고 여기에 이르러 최초로 일품무명을 타파한 만큼 중도를 증득한다면 법성진리와 서로 호응하게 된다. 따라서 부처님 모습을 수행분이만큼 증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부처가 된 것은 팔상성도로서의 부처님이 최후에 번뇌를 여린 오묘하고 극치에 도달한 법신불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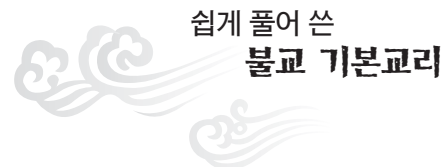
이 수행지에서는 제법의 진실한 실체를 명료하게 통달할 수 있다. 진실한 실체는 무성(無性)의 성품인데, 이것이 바로 여래장 원각 묘성인 것이다. 이것이 수행인지에 통하고 깨달음의 과위에 사무치는 것이며 일체 삼매공덕지혜와 법신이 자기의 마음가운데서 천연적으로 있는 것이며 조작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여래가 최초로 도를 이루셨을 때 세 번이나 기이하다고 탄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온대 지 중생이 모두가 지혜 덕성을 갖추었던만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은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어 각자마다 없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 “처음 발심한 보살이 여러의 한 몸에서 한량없는 몸을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서 한 몸은 바로 법신이며 한량없는 몸은 응신을 말한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시몬테이프 제작 보급

동행학원은 지상강의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한테스지관)와 호법유사의 비판서(사) 새로운 유산학의 길잡이인 유산학의 신유시몬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anmail.net



사종열반(四種涅槃) 1

열반(涅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러한 이상경’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열반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처음으로 창안한 것은 아닙니다. 옛날 인도의 바라문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열반을 그 극치의 귀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범어인 열반은 원래 소산(消散)의 의미인데, 번뇌가 소멸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열반은 구역(舊譯)에선 멸(滅), 멸도(滅度), 적멸(寂滅), 불생(不生), 무위(無爲), 안락(安樂), 해탈(解脫)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당나라 현장 스님의 신역(新譯)에선 원적(圓寂)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보는 업인을 따라서 부르고 업인은 다시 무명미혹을 연유해서 일어납니다. 미혹은 사건이며, 사건은 아집과 법집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건을 따라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은 다시 자신을 속박하며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무아(無我)의 이치를 통달하셨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악업을 짓지 않으며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집견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 태어나선 고뇌를 받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고 현재의 삶을 탐욕심으로 추구하면서 스스로 죄악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사인과가 간단없이 상속 유전해 영원토록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선 “인생의 모든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자아상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어나서 삶을 누린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끝내는 생사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해탈을 통해서 살아서는 번뇌를 영원히 끊고, 사후엔 멸도하여 생사윤회의 세계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두고 열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열반을 단순히 육신의 죽음 정도로 오해해선 안 되며, 죽은 뒤에야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하에서 성도하신 이후 바로 열반에 드셨는데, 이 같은 열반의 이치는 심오하고 오묘하여 언어로서 비유가 불가능합니다.

현생에서 열반을 증득하고 허망한 견해가 다하여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는다면 그는 현생에 인러할 뿐만 아니라 미래생에서도 생사해탈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연념보리심처처안락국(念念菩提心處處安樂國)이라고 했습니다. ■정리=張如舟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종단 등록지중 제 2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포교사는 정관 제 6조 및 8조 중헌 제18조에 의거 총회에서 제적결의
■ 제적일자 : 2009년 3월 1일부
제적자는 본 종단명의로업무 일체금지, 사찰등록증, 승려/포교사 증 효력상실
■ 본 종단 소속으로 각 세무서 등록 즉각 취소요망, 연말전산 영수증 발급금지요망
■ 전화 : 055)672-4394

제 2차 제적자 명단

Table with 4 columns: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Lists names of monks and nuns to be deposed across various temples.

불기2553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장 신 용태 법륜
총무원장 강 경우 송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종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추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해봉스님 직통 011-545-5060

제23회 不二賞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의 앞날을 이끌어 갈 신진학자와 자비행의 실천에 앞장 서 오신 분을 대상으로 불이상을 제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합니다. 불교발전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상분야】

- 가. 연구분야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전반에 걸친 학문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불교에 입문하여 10년이 경과하고 수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개인(연령제한 없음) 또는 단체
【시상규모】 각분야별 1명 1000만원
【후보자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 (분회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 (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 (총장·대학원장, 기관및단체의 장, 역대 불이상 수상자)
【접수마감】 2009년 5월 31일까지
【수상자발표】 불교계 언론매체
【접수처 및 문의】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18 불이상담당자 앞 (010-3772-8179)

不二會